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3)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④

其六曰 卿已出家 捐世所纏 기육왈 경이출가 연세형구 當務竭情 泥洹合符 如何變動 不樂期屆 當務竭情 泥洹合符 如何變動 不樂期屆 當務竭情 泥洹合符 如何變動 不樂期屆

지식과 가즈런할 것(같이 될것)이다. 이같은 출가는 족히 부모의 은혜를 갚고 종친과 아는 이가 모두 은혜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제 짐짓 내게 경계하노니 마땅히 각자 뜻을 두렵게 할지어다.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그 여덟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나 성품은 (아직) 어둡다. 배움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은 세밀히 닦는데 있다. 상근기는 좌선, 중근기는 송경, 하근기는 절 살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종일토록 한가지도 이루는 게 없었는가. 입신하고도 이름이 들리지(나지) 않으면 가히 헛 살았다 할 것이라 이제 짐짓 너를 꾸짖으니 마땅히 뜻을 단정히 할지어다.

그 여섯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나 세속의 형상과 몸을 버린 것이다. 마땅히 뜻을 원통 기울여 니연(니르바나)에 부합하기를 힘써야 하거늘 어찌하여 (심신이) 요동하며 조용히 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가. 경도를 손상케 하고도 (도는 따지 않으면서) 세간일이 남아 있고 맑고 깨끗한 길은 밟지 않고 발길을 진흙탕으로 되돌리니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이 목숨은 잠깐 사이라 지옥의 고통은 가히 글로 갖추어 쓰기 어렵나니 이제 짐짓 힘쓰기를 경계하노라. 마땅히 옛 성인들의 실다운 글을 숭상할지어다.

비록 외모 남루하나 앓고 섬 단정히 하라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그 일곱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나 자신에게 관대치 않다. 형상은 비록 비천 남루하나 행을 불만하게 하며 의복은 비록 거저나(더러우나) 앓고 섬이 단정하며 음식은 비록 보잘것 없으나 말할 때는 가히 먹음직스럽게 하라 여름엔 더위를 참고 겨울엔 추위를 견디며 능히 제 절개를 지켜 도전을 마시지 말라(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말라) (도천:그 이름이 도독셈이라 하여 공자가 마시기를 거부한 셈)

그 아홉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나 영영 부모를 거스른 것이다. 도법으로 심성을 개혁하고 속세의 옷을 버렸다. 어버이 하직할 날 한편 슬프고 한편 기뻐오니 아득히 세속과 인연 끊고 종진 세상 뛰어 넘으려할진대 마땅히 불법을 닦아 자기를 다스리고 진리의 길 밟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공부엔 마음이 없어 다시금 세속 인연에 몰드는가.

經道已薄 行無毛分 言非可貴 德非可珍 經道已薄 行無毛分 言非可貴 德非可珍 經道已薄 行無毛分 言非可貴 德非可珍

공부길은 이미 희박하고 행동거지엔 터럭만큼도 도라 할게 없으며 말은 귀하지 않고 덕은 가히 보배답지 않으며 스승과 벗이 누가 되고 통한은 날로 성해지는구나.

이같은 출가는 법을 훼손하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스스로 심신을 조히 기를지어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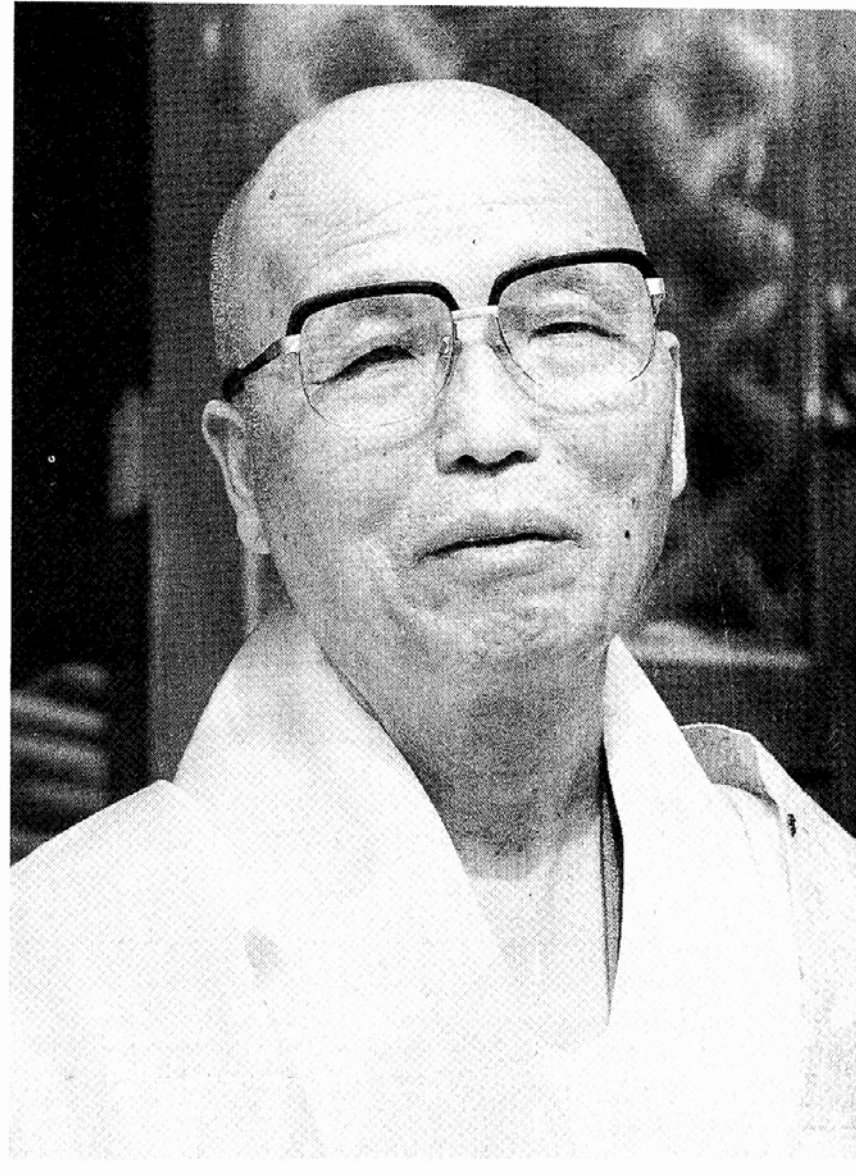
不肖之供 足不妄前 不肖之供 足不妄前 不肖之供 足不妄前 不肖之供 足不妄前 不肖之供 足不妄前

불초한 공양법에 맞지 않는 공양)자라엔 망녕되이 나가지않으며 사실에 오래 머물되 지존이 왕립한듯이 하면(남이 안보더라도 행동에 조심하라는 뜻) 배움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가히 옛 선

“믿음이 굳건 해야만

지 상 범 석

보성스님 (송광사 율주)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조계사에 있다보니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가는군요. 이곳은 저에게 있어 즐거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항상 눈여겨 본 것이 있다면 뜰어낸지 얼마되지 않은 정화회관인데, 활러진 것을 보니 흔하할 말하는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틀리듯 부처님 말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불자라면 한번쯤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한사람 한사람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을까 생각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뭔가'라고 질타성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마음자리가 바르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른신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몇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문을 법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은데, 법문을 듣고 알았다는 사람은 드물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의 행사 가운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예불 올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쓰레기 통에 버리세요”

데 법사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은 법법(法), 문문(門)자를 씁니다. 글썽 문(文)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턱을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밖가나 길가나, 여지전 남자건 나에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가를 한번 깊이있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웃에게 제대로 소개하며, 보이고 있습니까? 단정하게 보여야죠. 그것을 결코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모양은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장부는 갖춰진 삶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하늘을 받드는 뜻(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해서 마냥 따라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을 풀려서 좀 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자리에는 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는 집안의 불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흔하할 말하는 개종을 한 사람이 어떤 스님이 조계사에서 법문을 한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 보자는 뜻에서 오

늘 여기 오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발점은 누구나없이 다 신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신심은 도의 근원이며, 진리의 근원이며, 공덕의 모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착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신령스럽고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전혀 못 따라 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든지 스스로 구체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진 보배로운 역량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상을 비롯한 다른 세상을 가서 살더라도 그 인간의 근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삼재가 아닌 이제는 사제입니다. 인재라는게 하나 보태어져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니다.

우리는 흔하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지, 괴로움을 찾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법회에 가 보면 젊은이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자나 아들이 '할머니 오늘 절에 뭐하러 가지요'라고 질문을 할때 할머니는 나름대로 절에 가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절에 간다'고 대

우리는 이러한 근본에 대해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습관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집에 싸여 근본을 잃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40년전만해도 한강물에 뛰어 들어 목욕을 하고, 목마르면 한강물을 떠서 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물을 그렇게 오염되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인 우리가 아닙니까. 잘 아실것입니다. 삼재 중에 제일 무서운것이 인재입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사는 공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시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 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꼭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고 산에 깃들여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정이런 것이 있지요.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둬지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끝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